

서점에 가면 '여성'이라는 키워드를 담은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다. 《페미니즘을 위한 역설》 《여성과 법》 《모성보호와 여성정책 네트워크》 《왜 여성사인가》 《한국젠더 정치와 여성정책》 《백만장자가 된 여성들의 아주 특별한 법칙》 《여성과 미디어》 《여성이 당선된다》 《여성, 정치와 사랑에 빠지다》 《신화로 읽는 여성성 She》 《여성주의 남자를 살리다》 《성공신화를 이룬 여성 CEO》 《여성 엔지니어들은 아름답다》 《여성이어 자기만의 인생을 즐겨라》 《여성시대에는 남자들도 화장한다》 등 여성에 대한 주제를 다룬 분야도 다양하고 도발적인 제목도 눈에 띈다. 베스트 셀러에 오른 여성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 사회에서 성공하고 잘나가는, 또는 성공하기 위한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번 호에 만난 심영섭(40) 영화평론가도 여성이다. 심영섭 하면, '영화 20자평'을 떠올릴 것이다. 모든 영화가 그녀의 '영화 20자평'에 서면 단칼에 베여나가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20자평을 그만두었다. 왜냐하면 '삶은 20자로 설명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경계 지움' 자체가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본질과 멀어지는 것

'심리학과 영화를 섭렵한 사람'이라는 필명으로 미디어에 비친 심영섭에 대한 고착된 이미지는 페미니스트, 강하고 똑 부러지고 잘난 여성 그 자체다. 그녀가 자라온 환경과 지적(知的) 경로를 보아도 그렇다. 외할머니는 그 옛날에 경성사범을 나와 교사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어머니도 약사로서 사회생활을 하셨던 분이라 여성이 일한다는 것을 매우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자랐다. 집 안에서는 의사가 되길 원했지만, 학자가 꿈이었던 그녀는 서강대학교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심리학 석사, 영화치료학 박사를 거쳐 현재 영화평론가라는 커리어 외에도 대구사이버대학교 상담 및 행동치료학과 교수, 영상치료센터 대표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

남부럽지 않은 그녀가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여성평론가로 산다는 것》이라는, 다소 궁금증을 유발하는 제목을 붙인 에세이를 출간했다. 평론가면 평론까지 '여성'이라는 단어를 붙일 이유는 뭔가. 거기에는 '대한민국에서'라고까지 한정지었다. 이쯤 되면 편가르기라고 밖에 볼 수도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아도 페미니스트라고 보는

안티들이 있는 마당에...

에세이의 내용은 대한민국에서 여성 평론가로서 매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메시지도 아니며, 영화 20자평처럼 무시무시한 칼날을 들이대지도 않는다. 단지 '인간 심영섭'의 그림자에 관한 솔직한 고백이다. 스물일곱 살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스물아홉 살에 아이를 업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심 교수는 드러내기 힘든 그림자까지 노출함으로써 다른 여성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고 한다.

'심영섭'이라는 아이콘은 항상 페미니스트라는 꼬리가 붙어 다녔다. 그렇게 말하는 이들에게 던지는 충고는 "그렇게 '경계 지움' 자체가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본질과 멀어지는 것"이라며, "여성이라면 남성과 여성의 경계를 넘어서선 다원성, 그리고 차이를 허용하는, 때로는 이방인, 무질서, 광기, 주변의 저급한 것들과의 화합을 꾀할 수 있는 파격과 너그러움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녀가 영화평론가가 된 계기는 박사과정 났을 때 영화동호회 영귀방(영화퀴즈방)에서 일명 '영퀴스트'로 활동하면서부터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내면지향적이었던

그녀가 대범한 성격으로 변하게 된 계기도 영화동호회 덕분이었고, 그녀의 삶에 큰 패러다임으로 작용했다.

“심리학이라는 마누라를 얻었더니, 영화라는 애인이 와버렸어요.” 서울 백병원 임상심리학 레지던트였던 심 교수는 환자를 보면서 틴틈이 심리학회지에 영화평을 실었고, 1998년 <씨네21>에서 제3회 영화평론가 상을 수상하면서 본격적으로 영화글로 밥을 먹게 됐다. 이후 《씨네21 영화감독사전》(공저) 《영화, 내영혼의 순례》 《심영섭의 시네마 싸이콜로지》를 저술했다. 글을 쓴다는 행위가 얼마나 내밀하고 개인적인 작업인가를 심 교수는 체득해서 알고 있다.

“대가들의 글에서 통찰력과 섬세한 감수성을 느낄 때면, 그들의 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것이며, 가슴은 얼마나 뜨거웠을 것이냐를 생각해요. 그래서 글쓰는 사람이 존경스러워요. 제가 존경하는 글 안에는 피가 묻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글쓰기는 능숙함보다 치열함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심 교수가 아무런 대가없이 영화를 보고 즐거운 일이 영화평론가가 되기 위한 준비과정이었다. 심 교수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영화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게 생후 1개월 때부터 어머니 품에서 스크린을 접했기 때문이다. 최초의 기억으로 떠오른 장면은 <남태평양>이라는 영화라 한다. 무의식 속에 가라앉아있던 영화의 한 장면이 성인이 된 후 다시 그 영화를 보았을 때 뇌리에 스치면서 오버랩 된 것이다. 후에 어머니에게 들은 얘기로는 그녀가 한 살 때 본 영화라고 한다.

남성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지만, 반대로 여성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다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상호작용적 영화치료의 효과>라는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심 교수는 영상치료센터 ‘사이’의 대표이다. ‘사이’는 ‘사이’ 콜로지에서 힌트를 얻기도 했지만, 사람과 사람의 ‘틈’을 다뤄주는 역할을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함축돼 있다. 그녀의 이름대로 ‘심리학과 영화’를 합치는 작업을 실천한 것이다.

심 교수의 개인 서재에는 생리학, 심리학, 인문학, 영화 관련된 책들이 주를 이룬다. 영화평론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문학 전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설과 시는 기본이며 철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데올로기, 이미지 관련 도서를 심도 있게 공부해야 한다고 ‘코치’ 했다.

영화치료는 ‘영화만들기’와 ‘영화감상’으로 나뉜다. 영화치료의 기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놀이에 술성이다. 흔히 상담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영화치료는 퇴행적 속성을 지닌 놀이를 이용해 치료하는 기법이다. 두 번째는 스크린은 일종의 거울의 역할을 함으로써 내면의 욕망, 결핍, 충동 등을 관찰할 수 있다. 끝으로 인지행동적으로 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문제적인 행동을 바르게 교정해 주는 작업이다.

“그동안 영상산업이 발달되면서 청소년들이 영상을 수용하는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켰죠. 상상력을 빈곤하게 한다든지, 영화가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 그대로를

반복한다든지 하는 등... 영화 치료는 영상 수용의 문제점을 더 창의적이고,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장점을 갖고 있어요. 영화가 다양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다른 수용방식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심 교수는 사진 이미지를 공부하기 위해 얼마전 아프리

카에서 천 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 왔다. 오는 9월에는 영화치료와 관련한 번역서인 《Emotion Picture Magic》을 출간한다.

“지난 10년은 심영섭이 누구인가에 대해 치열하게 탐구하는 시간이었어요. 앞으로의 10년은 외부에서 원하는 것과 내부에서 원하는 것 사이의 줄다리가 남았어요. 공부하고, 대결하고, 통합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심 교수의 가족은 ‘스텝 패밀리’다. 그녀가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남편 남원석 교수(우석대 영화학과)는 여성 안에 있는 남성성(애니무스)을 존중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올해 불혹(不惑)의 중반을 달려온 심 교수의 고백은 이렇다. “여성으로 사는 게 참으로 좋았노라고, 여성으로서 다른 여성을 도와주고 연대하며 사는 게 행복이죠. 여성 권한지수 79위인 대한민국에서 늙을 때까지 여성 평론가로 남을 것입니다.” **주필**



심영섭 교수 서재에는 생리학, 심리학, 인문학, 영화 관련 책들로 꽂혀 있다.